

# 경쟁과 협력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강철규

## 1. 머리말: 인류역사 속에서 경쟁의 역할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 오늘날까지 눈부시게 변화·발전해온 것은 치열한 생존경쟁과 진화의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인류를 포함한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 혹은 존속과 확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쟁(競爭)을 할 수 밖에 없다. 동물들은 물, 먹이, 짝짓기를 위해 이종(異種)간 혹은 동종(同種)간 자연적으로 서로 경쟁하게 된다. 인간도 물, 먹이, 짝짓기 이외에 부와 권력, 명성 등을 얻기 위해 상호 간에 경쟁을 하는 본성(本性)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삶에서 경쟁과 게임(Game)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종의 존속과 확산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서 경쟁은 자연선택(自然選擇)과 진화의 원동력이라고까지 말해진다. 인류는 수렵채취시대부터 먹이를 얻기 위한 경쟁과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얻기 위한 경쟁을 계속해왔다. 더 넓혀 말하면, 필요하지만 희소한 자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여 왔다. 개인간 경쟁, 씨족이나 부족간 경쟁을 거쳐 부족연합이나 국가가 형성된 이후에는 민족과 국가간 경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을 통해 승부를 내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경쟁을 하게 된 이유는 희소성(稀少性) 때문이다. 존속과 확산에 필요한 가용(可用)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원 확보를 위하여 서로 경쟁하게 된 것이다. 경쟁은 종국적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비정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인간행동(人間行動)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희소성 때문이다.

경쟁은 최적자(最適者)를 가려내어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을 얻는 것 이외에도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집단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것이 개인이라면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고, 국가라면 영토를 확장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며 부와 노예를 얻을 수 있다. 기업이라면 시장을 확대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가 발달하면서 인구의 증가와 1인당 부(富)가 급속하게 증가했다. 시장경제의 발달은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말했듯이 “각자 이기심에 따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원리에 기인한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실제로 시장에서는 경쟁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자유경쟁(自由競爭)을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지목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이 바로 부를 증가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회 전체의 경제적 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경쟁을 억압하는 것은 정부든 사적독점(私的獨占)이든 이를 모두 배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합과 같이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장경제의 제1의 적(敵)’이라 하여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자유경쟁을 수호(守護)하는 일이 국가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된지 오래다. 이 만큼 경쟁은 인류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 2. 시장경쟁의 효과와 한계

시장경쟁(市場競爭)은 자원의 희소성 하에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즉, 희소한 자원을 낭비 없이 생산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또한, 시장경쟁은 생산성을 높인다. 투입요소단위당 생산량을 최대화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한, 경쟁은 인간생명이 존속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번영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쟁할 자유는 자유의 한 형태이다”라는 명제(命題)가 성립한다.

그러나 시장경쟁은, 비록 그것이 자유의 한 형태라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자유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패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그러나 시장경쟁에서 승패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마치 자연의 힘을 자유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경쟁자들에게 해악(害惡)을 입히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규칙에 따라 패하거나 쫓겨나더라도, 역시 자유에 대한 억압은 없다.(Lakoff, 2006) 다만, 전제(前提)가 있다. 경쟁에는 그것을 지배하는 법과 규칙이 있어서, 이를 지켜야 한다. 법과 규칙이 불공정하거나 공정한 법과 규칙을 위배한 가운데 이루어진 경쟁의 결과는 불공정하며, 불공정(不公正)은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간주된다. 법과 규칙뿐만 아니라 경쟁을 둘러싼 시장의 환경도 공정해야 한다. 경제학에서 ‘완전경쟁’(完全競爭)이라고 하는 경우는 시장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시장 참여자가 다수이어야 하며,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장의 환경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실패할 수 있다.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는 자유경쟁도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개입을 잘못하여 시장경쟁을 왜곡할 수도 있다.

결국, 경쟁은 자유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공정경쟁(公正競爭)의 규칙에 따라야 하며 경쟁 참여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인류사회가 창안한 시장경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반칙경쟁을 공정경쟁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정거래(公定去來)를 규정하고 무엇이 반칙인지를 정한 공정거래법 등은 중요하며, 이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 또한 반칙이 없는 자유경쟁을 보장하는데 중요하다.

반칙이 없는 자유경쟁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의 자유도 중요하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이동하는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 2002)은 “여우들에게 전적인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양들의 죽음을 뜻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신체, 재산,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원칙, 즉 ‘타자위해의 원칙’(Harm Principle)(J.S. Mill, 1869)을 제시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자유의 기준이 되고 있다. 개인, 정부, 기업 등에 의한 간섭이 나에게 해악이 될 때, 이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자유이다. 단순한 신체적 구속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에 의하여 비만이 증가한다면, 이것도 자유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하여 빈곤층이 증가하고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이 떨어지거나, 재개발에 의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약을 받을 경우도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협력의 중요성과 역할

자원이 희소한 가운데,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중요하다면서 경쟁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인류학, 신경정신학, 유전학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최신의 결과들은, 인간이 경쟁을 하는 동시에 협력(協力)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특히, 상호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가 인간 본성의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내 등을 긁어주면 나도 너의 등을 긁어준다”는 것이 바로 상호적 이타주의인 것이다. 최소한 이러한 이타주의가 상호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일부 사회적 진화론자들은 ‘최적자(最適者)가 생존과 번영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그들이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여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지원은 곧 낭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이 세상에 나타난 지 150년이 지난 오늘날 새로운 진실들이 확인되고 있다. 사람들은 자연에 적응하기 위하여 또는 희소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확실히 경쟁을 하지만, 서로 협력하는 것도 사실이다. 넘어진 자에 대하여 연민(憐憫)의 정(情)을 가지거나, 그들을 돕는 것 같은 행위

는 '종(種)의 기원' (Origin of Species)에는 없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행위에 대한 가설들이 적자 생존을 주장한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의 “개별적 경쟁(Individual Competition)만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관계(Social Interaction)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자원이 희소한 가운데 인간들이 협력하면 비제로섬 게임(Non-zero Sum Game)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호 협력이 가능해진다. 수렵채취시대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사냥을 하고 적과 대응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함을 깨닫게 되면서, 무리들은 서로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왔다. 뿐만 아니라 약 1만 년 전부터 농경기술과 정착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로(水路)와 관개(灌溉), 그리고 두레나 품앗이처럼 공동농사를 하는 것이 수확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상호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깨달아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로버트 라이트(Robert Wright)는 ‘비제로’ (Non-zero)라는 저서에서 “인류역사의 많은 부분이 협력과 이기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핵심적인 긴장(緊張)의 산물(產物)”이라고 주장한다. 라이트는 “단순한 수렵·채집민 종족에서 조직화된 마을로, 그리고 국가와 세계적인 기업으로 사회적 복잡성이 확산되는 과정은, 사람들이 점점 더 큰 규모로 협력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 더 복잡하고 수익성 있는 비제로섬 게임을 하는 방법을 고안한 결과였다”고 주장한다.(Beinhocker, 2006)

협력은 경쟁과 마찬가지로 생산성을 높인다. 애덤 스미스의 예에서 보듯이 분업(分業)을 통한 협력은 생산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비제로섬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협력을 하게 되면 인간의 두뇌에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인 옥시토신(Oxytocin)의 수치가 높아진다.(Shermer, 2008) 이 점에서 협력은 경쟁과는 다른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직접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협력을 이끌어내는 요인은 무엇인가? 그동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호 신뢰가 있는 경우(Putnam, 1993), 인센티브(Incentive)가 있는 경우(Ulman-Margalit, 1978), 그리고 반복게임(Repeated Game)인 경우, 즉 관계의 지속성이 있는 경우(Axlord, 1984)에 협력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협력은 사회적·정치적 불평등의 정도(Boix and Posner, 1998)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Alessandro Arrighetti, Gilberto Seravalli, Guglielmo Wolleb, 2008) 그 중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협력을 가져오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신뢰(信賴)이다. 상호 신뢰를 하지 않으면, 비록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협력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신뢰가 필수적이다.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결과로 얻는 성과물에 대한 올바른 배분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배분방식이 없으면, 즉 사회적·정치적 불평등도가 커지면 협력을 이끌어 내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약속한 규칙 혹은 계약이 일관성 있게 지켜져야 하며, 이를 어긴 자에 대한 응징도 있어야 한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신뢰를 보증하는 것으로써 게임 참여자들을 흔쾌히 협력에 참여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정책에

있어서 조변석개(朝變夕改)가 아니라 지속성(持續性)과 일관성(一貫性)이 요구되는 것은,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신뢰라는 사회규범과 경험이 존재하는 환경과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협조적인 환경에서는, 만약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행동방식이 아마도 실수나 오해로 인한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덜 협조적이며 협조를 지지하지 않는 사회적 규범이 있는, 다시 말해 속임수가 많은 환경에서는 경험에 입각한 협력 소프트웨어(Collaboration Software)가 우리를 의심하는 쪽으로 치우치게 만든다. 즉, 속임수를 쓴다는 증거가 처음 나타났을 때도 거칠게 반응하며 용서한다고 하여도 천천히 용서한다.”(Beinhocker, 2006) 이만큼 신뢰사회(信賴社會)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신뢰는 중요하다. 신뢰를 무너뜨리면 그것의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다.

## 4. 결론

경쟁과 협력은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두 개의 필수 기둥과 같은 가치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존속(存續)과 흥망성쇠(興亡盛衰)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경쟁은 물론 보호되어야 한다. 경쟁 당사자들을 힘들게 하여도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공정한 경쟁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주 논의하고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과 협력의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첫째, 산업혁명 이후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자본가 계급이 사회를 주도해가고 있는 가운데, 경쟁의 가치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능한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발견하여 길러주려는 교육,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공해 배출의 문제에도 시장원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시장경쟁을 하게 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원리의 도입은 때로는 다른 가치, 이를테면 생명 존중이나 자유의 확대, 혹은 환경보호라는 보다 기본적인 가치를 침해하거나 이들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여야 한다.

둘째,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협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패를 나누고, 이는 빈부의 격차나 신분의 격차를 낳게 한다. 만약 격차가 심화

되면, 예컨대 양극화(兩極化)가 심화되면 협력의 가능성은 더욱 멀어진다. 이는 다시 기업이나 집단 내에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것이 문제다. 사회적 갈등, 대결, 충돌이 빈번하고 심각해지면,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어 경쟁에서 얻은 효율성을 능가할 수 있다. 비용 면에서만 보아도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개인의 행복이나 심리적 안녕감(Well-Being)이 저하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총체적인 후생이 감소한다.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은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기술(Social Technology)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법을 지키고 법 집행을 공정히 하는 일, 공평성과 평등을 실현하는 일, 생명을 존중하는 일 등을 통하여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들이 존중될 때 협력의 진가가 발휘될 것이다.

#### 〈 참고자료 〉

- Arrighetti, A., G. Seravalli, G. Wolleb(2008), Ch. 19 "Social Capital, Institutions, And Collective Action Bet. Firms" Ch. 19. in D. Castiglione, J. W. Van Deth and Wolleb, G.(2008),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Univ. Press
- Axelrod, R.(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einhocker, E.(2006), *The Origin of Wealth: Evolution, Complexity, and The radical remaking of Economics* 안현실 정성철 역, 부의 기원, 랜덤하우스
- Boix, C., and D. N. Posner,(1998), "Social Capital: Explaining Its Origins and Effects on Government Perform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8/4: 686-93
- Berlin, I.(2002), *Liberty: Incorporating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박동철 옮김, 2006
- Castiglione, D., J. W. Van Deth and G. Wolleb(2008),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Oxford Univ. Press
- Lakoff, G.(2006), *Whose Freedom?*, 나익주 역(2009), 자유전쟁, 프레시안북
- Mill, J. S.(1859), *On Liberty*, 『자유론』: 최요한 옮김, 홍신문화사
- Putnam, R. D.(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 13: 35-42
- Shermer, M.(2008), *The Mind of The Market*, 박종성 역(2009), 진화경제학, 한국경제신문